

< 調査研究シリーズ 126 >

홍성의 마을 커먼즈와 농촌(마을) 생태계 - '농업' 생태계에서 '농촌(마을)' 생태계로의 변화

신명직(申明直)

[韓国語要旨]

근대 푸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로컬 푸드 시스템의 붕괴와 국내 푸드 자급 시스템의 붕괴 및 소농의 몰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도농 간의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생태계를 이룬 홍성의 경우이다.

홍성군 홍동면의 경우 1994년부터 실시된 오리농법에 의한 유기농업이 2005년에는 900 농가 230 만평 규모로 확대되었고,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는 등, 풀무생협을 비롯한 소비자 생협들을 통해 도농간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2006년 유기농 쌀과동을 계기로 홍성의 유기농 생산과 유통 및 소비 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유기농업이라 하더라도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농간의 분업 네트워크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꾸려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홍성은 도농 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 유기농 중심의 '농업' 생태계와는 별도로 '농촌(마을)' 안에서 우선적으로 생산과 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생협을 중심으로 도시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홍성의 도농 네트워크형 농업 생태계는, 스스로가 다양한 커먼즈들로 이루어진 풍부한 농촌(마을) 생태계를 꾸림으로써, 대등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도농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키워드 : 커먼즈, 농업생태계, 농촌(마을) 생태계, 홍성, 유기농업, 풀무학교

1. 머리말

근대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푸드 시스템은 크게 변화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로컬 푸드 시스템의 붕괴, 국내 푸드 자급 시스템의 붕괴, 소농의 몰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은 근대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특히 후기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적 푸드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 곧 성장 동력에 대한 회의와 함께 이른바 낙수효과에 따른 성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어 갔다. 기존의 근대 푸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고, 곧 사회적 연대를 통한 경제, 문화 시스템의 복원과 새로운 푸드 시스템의 재구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이다. 도시와 농촌, 곡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간극은 서로를 황폐화시키면서 푸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빼앗았으며, 유전자조작(GMO) 농산물의 대량유입으로 인해 푸드 시스템의 안전성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협받아온 푸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회복해야하기 위한 노력 또한 끊임없이 시도되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무렵부터였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유기농업(혹은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도농간의 직거래와 이를 제도화한 생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푸드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 특히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아닌 비유전자조작(Non-GMO) 농산물을 추구하는 푸드 시스템에 관한 문제제기가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며, 특히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선 1990년대 이후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유형의 극복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나는 로컬(도농)간의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 농업 생태계를 형성한 충청남도 홍성의 사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네이션(민족)네트워크를 통해 농업 생태계를 형성한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유기농 농업 생태계의 새로운 구축을 통해 기존의 근대 푸드 시스템을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각각 한두 차례의 고비를 맞게 된다. 이 두 사례는 이와 같은 위기를 새롭게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은 '농업' 생태계가 아닌 '농촌(마을)' 생태계의 구축과 농생태학적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또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대적 '농업' 생태계와 후기근대적 '농업' 생태계

폴무학교가 1958년 만들어진 이래, 1959년 학교 교실에서 시작된 교내 구판장이 '폴무소비자 협동조합'(1969년)이 되고, 이 조합이 흥동지역의 주민들까지 함께 하는 제대로 된 해방후 한국 최초의 소비조합으로 탄생하게 된 것¹⁾은 1980년 무렵이다. 하지만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1) 이번영, 『폴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그물코, 2018, 95-99쪽.

중심으로 운영되던 풀무 소비조합이 홍동마을을 넘어 도농간 생산-소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유기'농업'과 결합하면서부터였다.

한국에 유기농업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정농회(正農會)로 그 사무국은 현재 '풀무농업 기술학교 생태농업 전공과정(전공부)' 입구에 있다.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정농회는 전국에 7개 지회, 약 5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애농회(愛農會)를 만든 고탄니 준이치(小谷純一)가 부친의 풀무농원을 방문하면서 1975년에 만들어진 정농회가 한국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한 이래, 홍성에서 본격적으로 유기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후루노 다카오(古野隆雄) 오리(合鴨)농법²⁾이 홍동에 전해지면서 부터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동은 자연스럽게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었고, 대한민국 녹색 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유기재배 벼 전문 정미소, 환경농업교육관 건립,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었다. 2005년 홍동면 일대에는 약 900농가 230만평 규모의 오리농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유통을 전면적으로 취급해온 '풀무생협'과 한 살림/두레/아이쿱 생협과 같은 소비자 생협의 성장과 함께,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의 전면적 구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³⁾. 하지만 풀무생협/영농의 경영상의 문제와 소비자생협(아이쿱)의 소비자 우선 경영방침 등이 2006년 유기농 쌀과동을 계기로 심화되면서, 2010년대 이후 홍성의 유기농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⁴⁾.

유기농이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도농 간의 분업 네트워크라는 근대적 농업생태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 기본적으로 마을(농촌) 안에서 생산과 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농업생태계가 꾸러지기 시작했다. 먼저 '풀무학교생협'의 변화가 눈에 띈다. 전국 소비자생협과 같은 유통과 소비를 외부와의 연계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풀무생협과 달리, 풀무학교생협⁵⁾은 홍성 마을 내 생산·유통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해 갔다. 유기농 쌀과

2) 후루노 다카오는 1988년 오리체초법을 통해, 오리농법을 취득, 1990년부터 '오리벼 동시농법(合鴨水稲同時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92년부터 아시아에 퍼져나가기 시작, 1993년 홍동에 소개되었고, 1994년부터 풀무학교 졸업생 주형로가 오리농법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제2차(1997년)·5차(2006년) 아시아 오리농업대회가 홍동에서 개최되기도 했다(<http://aigamokazoku.com>)

3) 귀농21년차인 L과의 인터뷰(2018.5.29.), 허남혁,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 소비관계 변화: 홍성 풀무 사례연구」, 『농촌사회』 19집1호, 2009, 161-211쪽. 김소연, 「농생태학적 농촌개발을 위한 네스티드 마켓의 생성과 발전: 홍동사례 연구」, 『농촌사회』 25집2호, 2015, 28-29쪽.

4) 이번영은 이를 "사실상 파산, 33년 뒤로 돌아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이번영, 앞의책, 109-112쪽; 홍기원, 「생협 주도 유기농 생산자 종속화 논란 파문」, 『한국농정신문』, 2014.09.21).

5) 1977년 갓골어린이집 부근에서 풀무식가공조합에서 만든 직접 만든 빵을 공급하다, 1993년 풀무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풀무학교 생협'을 만들었다. 2006년부터 지금의 터에서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 2009년 '갓골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허가를 받고, 2015년 지금과 같은 건물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유기농 밀로 만든 빵과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의 마을 내 유통과 소비공간으로 자리잡았다. 7명의 일꾼과 22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현미(폴무학교 생태농업 전공부)는 물론, 평촌요구르트(금평리 평촌목장), 손두부(동곡마을 무농약콩), 무농약 콩나물과 포장육(홍성유기농 영농조합법인), 허브차(홍동면 꿈이자라는 뜰), 유기농 딸기와 딸기잼(세아유=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기농 농장), 달걀(장곡면 텃밭에 작은 농장), 된장/고추장/들기름(홍동면 이웃들), 홍주막걸리(홍동면 홍주주조), 저농약 사과즙/배즙(홍동면 화수농원) 등이 갯골의 작은 가게인 '폴무학교생협'으로 모여든다. 마을의 크고 작은 친환경 농산품과 1차 가공 농산품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마을을 중심으로 한 거미줄처럼 얽힌 농업 생산 및 유통소비 생태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⁶⁾.

갯골이 아닌 홍동면사무소가 있는 홍동농협 안의 로컬푸드 직매장엔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만든 반찬 협동조합 매장인 '할머니 장터 조합'⁷⁾도 마련되었다. 문당리 쪽엔 차/감부기면(폴무사람들), 우리쌀과자(다살림), 유기농 쌀빵/강정(초록이등지 협동조합), 유기농 쌀떡(홍성폴무⁸⁾) 등 생산품들도 다양해졌다. 마을의 자연순환농업을 축산과 결합한 '홍성유기농 영농조합',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정가격으로 묶어낸 정육식당 및 가공공장인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 자연재배를 토대로 생산과 소비를 결합한 협동조합(다중 이해관계자)을 만들어 낸 '홍성 자연재배 협동조합' 역시, 2010년 이후 마을 내 생산과 유통소비를 근간으로 한 농업생태계 구성원들이다.

마을 내 유통과 소비가 아닌, 마을 밖 네트워크와의 소통이 단절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농부의 시장'⁹⁾을 비롯해, 다양해진 온라인 장터, '꾸러미'와 같은 소규모 생산·소비 연결 시스템 등이, 홍성 마을 생태계와 또 다른 마을 생태계들을 연결해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마을 농업 생태계 역시 기존의 생산·소비 시장과의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생태계이기 위해서는 '농업연구소'를 통한 새로운 동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된다. 2000년대 이후 홍성에는 이와 같은 농업 관련 연구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공생공락 농업연구소', '교육농 연구소', '전공부 갯골 생태농업 연구소', '아하 홍성 생활기술 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홍성의 새로운 농업생태계를 추동해갈 농업연구소는, 농업과 관련된 기술 연구소라기보다 농업 교육프로그램 연구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농업기술 관련 연구를 꾸준히

6) 친환경농업은 친환경생산중심주의가 아닌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생태환경 보전과 마을만들기, 청년 육성등을 포함해야한다(김정섭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 미래의 농민, 도전해야할 과제』, 『마을』 2호,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7.(봄여름호), 그물코, 102-103쪽).

7) 초기(2012년)엔 마을 할머니들이 밝맑도서관 로비에서 직접 가꾼 곡식이나 채소 등을 일부일에 한 번씩 장을 열다가, 홍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2013년)에 할머니장터 코너를 마련했다.

8) '홍성폴무'는 2008년 떡공장을 설립해, 2010년 전국 친환경 가공품 품평회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엔 교황방문 시 아시아 청년대회 공식 떡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장은성 편, 『우리 마을입니다』, 그물코, 2018, 96-97쪽).

9) 서울시가 한글로벌컨버전스, 씬지농부 등에게 위탁해 덕수동 돌담길,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만리동 공원,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도심 직거래 장터(<http://seoulfarmersmarket.org>).

진행하고 있는 곳은 '갯골생태 농업연구소'와 '홍성 씨앗 도서관' 정도이다. '갯골 생태농업 연구소'는 논 생물 다양성 유기 논농사, 지역조사 및 공유, 유기 발농사 관련된 연구 등을 진행하며, 알맞은 재배과정을 마을 농가로 확대해가는 연구를 하고 있다¹⁰⁾. '홍성 씨앗 도서관'은 직접 채종포에 씨앗 농사를 지으면서, 유전자 조작이나 살충제에 오염되지 않은 제대로 된 마을 씨앗을 보급하며, 농사 짓는 과정과 씨앗 받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일본의 후쿠이 지역이나 스페인 몬드라곤이 세계적인 안경, 섬유 산업과 최첨단 기술산업을 내생적 발전 형태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 시켜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대학 안팎에 튼튼한 기술연구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¹¹⁾. 파고르 전자처럼 기술혁신을 이루지 못한 기업은 소멸하는 대신 대학 연구소와 결합된 새로운 첨단 기술을 장착한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해가는 생태계 고유의 생로병사 시스템처럼, 홍성의 새로운 농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계를 지원해줄 보다 고도의 농업 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홍성에는 이러한 전문적 농업 기술 연구소는 갖추고 있지 않지만, 재래 농업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춤할 수밖에 없는 오리농법 대신, 재단법인 대산농촌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정농회의 주형로 회장 등이 우렁이 농법을, 다시 메기농법 등을 선보이고 있기¹²⁾ 때문이다. 그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나, 끊임없는 친환경농법 연구는 새로운 농업 생태계, 곧 후기 근대적 농업생태계를 지속시켜줄 추동력임엔 틀림없다.

3. '농촌 (마을)' 생태계의 형성과 발전

(1) 1 차 플랫폼으로서의 마을학교 - ' 풀무학교 '에서 ' 마을학교 '로

홍성군 홍동면의 인구는 대략 3,500 여명¹³⁾이다. 그런 마을에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은 10 여개가 넘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을교육시설이다. '마을교육시설'이란 마을이 곧 학교를 의미한다. 일찍이 홍동마을에 '풀무학교'를 열면서 이찬갑 선생은 "일만

10) 정대이,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들녘, 2013.

11) 藤吉雅春, 『福井モデル』、文芸春秋、2015、134 ~ 142頁.

12) 오리농법이 조류독감과 관리문제 등으로, 우렁이농법이 생태계 교란 문제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데 반해, 메기농법은 탁수현상 등으로 잡초방지와 해충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메기양식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충남 홍성에선 '메기농법' 진행 중」, 『한국농정신문』, 2016.10.30).

13) 홍동면 인구는 3,502명이며, 홍성군 전체 인구는 10만 1426명이다. 홍성군 인구는 2017년 초에 비해 전반적으로 1,455명 늘었는데, 11개 읍면 중 9개 읍면의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홍동면과 홍북읍의 인구가 늘어났기(2017.9.) 때문이다. (「홍성 인구 10만1426명」, 『홍성신문』, 2017.10.12)

하는 건 짐승, 생각만 하는 건 도깨비, 지금 이 나라엔 짐승이 아니면 도깨비뿐¹⁴⁾ 이라며, "씨앗이 흙에서 싹터나듯 이런 인간의 기본 보통생활에서 깨달아 자라야 그것이 진짜 놀라운 참된 것"¹⁵⁾ 이라고 한 바 있다. 일터이자 공동체인 마을 전체가 곧 학교라는, 삶과 삶이 하나가 되는 공간을 홍성은 일찍이 60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다.

홍성에서의 마을 교육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한 가운데 서있는 학교는 물론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다. 금당과 홍동의 초중등학교를 잇는 학교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민'을 기르고자 이찬갑, 주옥로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에는 '학생 생활 협동조합'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학교공동체 속의 협동을 배우며 실천한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만이 아닌 마을에서 함께 일하며 배우는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농업과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는 2001년에 문을 연 '풀무농업 기술학교 생태농업 전공과정(전공부)'이 있다. 풀무농업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한 뒤, 마을일꾼이 될 인재를 키우는 일종의 '마을 대학'이다.

1990년대까지 홍동 농업생태계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던 '풀무학교'는 다양한 '마을학교'로 거듭나게 되는데,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너 군데로 늘어났다. 1차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풀무학교'가 '마을이 곧 학교'가 되는 다양한 마을학교들로 분화된 것이다.

갯골의 '갯골어린이집'과 '햇살배움터 교육네트워크', '장곡 신나는 지역 아동센터'는 씨앗교실, 논학교, 채소정원 등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마을학교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햇살배움터 교육네트워크'가 아이들 마을교육의 2차 플랫폼 역할을 하며, 마을의 다양한 교육역량들을 네트워킹하고 있다. 분교에 '지역아동센터'를 꾸려 운영하는가 하면, 마을 한 복판에 청소년들을 위한 'ㅋㅋ만화방¹⁶⁾'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마을이 아이들 교육의 자연생태 학습장이 되기도 하고, 문화 놀이터가 되기도 한 것이다. 학교가 마을의 문화생태계를 형성해가는 지점이기도 하다.

마을 생태계의 1차 플랫폼 역할을 했던 '풀무학교'는, 2000년대에 들어서 청년과 어른들을 위한 마을교육으로도 확장되어 갔다. 마을 청년과 귀농 귀촌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생각실천 창작소'(2015년 개관)에서는 스토리 메이킹 프로젝트, 청년 창업 실무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마을 농민과 주민들의 집수리와 가구 등을 제작하는 '갯골 목공실'(2007년 개업)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목공 교육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을

14) 홍성군 홍동면에 만들어진 마을학회 이름 '일소공도'는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뜻이다.

15) 밝맑 이찬갑 선생의 풀무학교를 여는 말(이찬갑, 『풀무학교를 열며』, 그물코, 39쪽, 2010). 1958년 4월 23일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올해로 정확하게 60주년을 맞이했다.

16) 2014년에 만들어진 'ㅋㅋ만화방'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방과후 컴퓨터자 광장이다. 영화상영이나 공연도 하고, 스스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진 'ㅋㅋ스교'과 같은 청소년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장은성 편, 앞의책, 2018, 54쪽).

위한 목공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문당마을을 중심으로 오리농법 등 유기농업 연구, 유기농 쌀빵 체험교육 및 제조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는 '문당 환경농업 교육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각종 연구, 교육, 전시, 공연 등이 진행되는 마을의 중심공간이라 할 '밖밖도서관'(2007년 풀무교육 5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 교육과 농업·농촌을 연계하고 연구하되 특히 농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사교육과 청년을 위한 농촌마을 교육 등을 수행해 온 '교육농연구소'(2010년 교육농장 조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들 가운데 몇몇 마을교육 시설은 폐교되거나 지원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늘 같은 학교가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다. 사람이 크고 자라면서 필요로 하는 마을학교의 형태 또한 변하기 때문이다. 자연생태계의 생로병사처럼 마을학교 역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더욱 풍성한 교육생태계를 꾸려간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 교육 생태계가 바른 '농업' 일꾼을 키우는 교육에서, 마을자체를 위한 교육 곧 '농촌' 일꾼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생태계를 꾸려갈 1차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풀무학교가 '밖밖 도서관'이나 '생각치런 창작소'와 같은 마을 생태계 2차 플랫폼으로서의 마을학교로 성장해 갔다.

(2) 청년 농업문화 생태계와 마이너리티 협업농

학교를 나온 청년들이 토지나 자본 없이 농업에 입문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홍성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¹⁷⁾은 이처럼 쉽지만은 않은 청년들의 농업입문을 잘 안내하고 협동을 통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젊은 협업농장은 귀농을 꿈꾸던 3명의 청년들이 시작했다. 지금은 친환경적인 유기농 쌈채소를 중심으로 먹거리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생산하고, 이를 꾸러미 형태로 도시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이들 마을청년들의 협업농장은 다양한 마을 청년농업 생태계와 결합되어 있다. '청년농부 작업장 온', '청년농부 영농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한 청년단체와 연계해 2주일동안 농부되기 체험을 해보는 '이주(移住/2週) 농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청년귀농 교육농장'을 운영하기도 한다¹⁸⁾. 청년을 중심으로 도농 간을 연계할 생태계 구축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17)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은 2015년 11월, 교보교육재단이 수여하는 첫 교보교육대상에 선정되어 리더십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http://collabo-farm.com>).

18) 서울시 청년허브 커먼즈 랩팀은 서울의 상생사회 상생플랫폼에서,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에서의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2주일 동안(숙박비와 식비 제공)의 프로그램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https://www.facebook.com/youthhubpage>). '청년귀농 교육농장' 운영 목표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는, '농촌의 공동체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청년농부, 지역 농민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농부, 융합적, 다기능적, 사회적 기능을 가진 농장을 만들어갈 새로운 형태의 농부, 교육농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교육농장의 분화와 연대' 등이다. 농업만이 아니라 마을(농촌)을 함께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특히 눈에 띈다(<https://www.facebook.com/youngfarmerson>).

또한 이들 청년들의 농업 공간들은 농산물 생산만이 아닌, 협동조합 농장을 통한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농업이론 강의를 들으며, 마을의 다양한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동시에 마을을 또한 배우게 되는데, 일정 정도 마을을 통한 배움이 끝나면 졸업과 동시에 농업관련 창업을 시작한다¹⁹⁾. 마을이 학교인 동시에 학교가 마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을사람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청년 농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형성하게 된 공간으로는 '오누이 친환경 마을 협동조합'²⁰⁾이 있다.

'오누이 친환경 마을 협동조합'은 전북 진안, 충남 논산, 아산, 예산 등지의 청년 협업농들과 농업·농촌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고, 서울 노원구와 도농상생 프로젝트²¹⁾를 실행하기도 한다. 오누이 친환경 마을 협동조합에는 '오누이 다목적 회관'과 '오누이 공동작업장', '오누이 예절 교육관' 그리고 '행복부엌' 등이 있다. 이들 공간을 통해 청년들은 '농업'만이 아닌 '마을' 곧 '사회적 농업' 생태계를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일원이 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농업 생태계는 농업경제 생태계를 넘어선 농업문화 생태계도 함께 꾸려갔다. 청년들의 마을문화 생태계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한 커먼즈로는 마을 사진과 영상,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 등을 함께 하는 민택기 사진 연구소²²⁾와 순리필름 등을 들 수 있다.

홍동면과 장곡면의 사회적 농업 경제·문화 생태계는 청년만이 아니라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에 의해서도 형성되어 갔다. '청년 협업농장' 옆 농장인 '협동조합 행복농장'²³⁾은 정신장애인들이 위한 치유와 실습농장이며, '꿈이 자라는 뜰'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농장이다. 은퇴 후 농사지으러 온 사람들을 위한 '은퇴농장'도 있다. 마을의 청년 농업문화 생태계와 마이너리티 협업농은 근대적 농업생태계 이후의 마을생태계인 '농촌' 생태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19) 정민철, 「농과 촌, 일과 공부, 마을과 학교-충남 홍성군 장곡면 젊은 협업농장의 실험」, 『마을』 1호, 2017.12, 38-39쪽.

20) '오누이'란 오디/누에/냉이의 줄임말로, 홍동저수지를 공유하는 장곡면의 4개 마을을 가리켜 '오누이 권역'으로 부르는데서, '오누이 친환경마을 협동조합'이란 명칭이 생겨났다(장은성 편, 같은책, 2018, 44-45쪽).

21) 서울시 노원구의 학교급식 관련 직거래 뿐 아니라, 식생활교육, 도농간 교류 및 체험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주대 농생명 환경연구센터와 충남 동물위생 시험소 등에서 농약 잔류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하는 등 도/농/대학 간 생태계 연계도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홍성군과 노원구 도농상생 프로젝트홍성군-노원구 인적교류도 활성화 하기로」, 『홍성신문』, 2017.11.16.).

22) 사진가 민택기는 시각디자인과 사진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광고전문사진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장곡면 젊은협업농장의 사진팀장을 겸업하면서 농장 홍보용 리플릿과 꾸러미 상품 사진의 작업을 하고,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사진을 의뢰 받아 일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 사진 찾아 가세요' (느티나무헌책방 한평전시관, 2013), '정원의 기쁨을 모두에게' (밭밖도서관, 2014), 'Framing Frame in Jeju' (생각실천창작소 갤러리, 2015)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진전을 기획, 전시하고 있으며, 홍곡마을에서 민택기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젊은협업농장 소식지』, 2015년 6월호).

23) '협동조합 행복농장'은 2013년부터 모색해 2014년 개소식을 가졌고, 2015년에 독립법인으로 협동조합 등록을 마쳤다(<http://happyhada.com>).

(3) 마을 문화·의료·경제·환경 커먼즈²⁴⁾

홍성은 90년대까지만 해도 홍동면과 장곡면을 중심으로 풀무학교(1958)와 풀무환경농업조합(1960), 풀무신협(1969)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을 꾸려가는 소박한 농업공동체였다. 2천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성은 다양한 마을문화생태계를 꾸려가기 시작했다.

교육을 중심으로 의료/문화/건축/경제/환경/행정을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해간 것인데, 마을문화생태계의 1차 플랫폼 역할을 담당했던 풀무학교와 그 풀무학교의 졸업생들은 친환경농업과 풀무신협, 홍성신문 등을 중간거점 삼아, 마을 문화생태계의 2차 플랫폼인 밤밭도서관과 마을활력소를 만들어냈다.

밤밭도서관은 2007년 풀무교육 50주년을 기념해 형성된 공간으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갯골에 밀집해 있는 갯골어린이집, 느티나무헌책방, 그물코출판사, 뜰방, 풀무학교생협 등을 연결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갯골길이 끝나는 삼거리에 위치한 '마을활력소'이다. '마을활력소'는 2천년대 이후 부쩍 늘어난 홍동 일대의 서로 다른 40여개 공간들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시키며, 새롭게 마을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교육해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일종의 중간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공간들이 홍동의 소중한 커먼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커먼즈들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 문화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커먼즈로는 먼저 1988년 군민 주주 방식으로 세워진 전국 최초의 지역신문 '홍성신문'을 들 수 있다. 다양한 홍보물들과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홍성신문은 지역의 이야기들을 공론화해온 문화공간의 만형이다. 2000년대 들어 설립된 '그물코출판사'(2001)는 마을과 농부의 삶, 그리고 협동과 돌봄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출판해내고 있고, '느티나무헌책방'(2006)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 학회지 '마을' 창간호를 펴낸 '마을학회 일소공도'와 함께 문화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는 홍성의 중요한 문화 커먼즈이다. 이 밖에 마을의 이야기들을 글과 사진, 영상, 라디오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유튜브, 팟캐스트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마을과 유기적으로 결합해가고 있는 '로컬스토리'(2017),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마을 술집 '동네마실방 뜰'²⁵⁾(2011) 등이 있다.

마을 경제 커먼즈로는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풀무신협'(1969)을 빼놓을 수 없다. 풀무신협은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금융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풀무학교

24) 여기서 커먼즈(communs)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커먼즈 연구에서 빌려온 것으로, 환경과 관련된 커먼즈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마을 생태계 역시 커먼즈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녀는 특히 마을의 자주관리(self-governance)와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를 커먼즈 형성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

25) '동네마실방 뜰'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식사를 파는 낮뜰과, 술과 안주를 파는 '밤뜰'을 운영하고 있는데, 맥주 한 잔이 팔릴 때마다 500원씩 적립해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한 돈의 5%는 마을화폐로 돌려받기도 한다(장은성 편, 앞의책, 28-29쪽).

졸업생과 교사 18 명이 4,500 원으로 시작한 풀무신협은 현재 3,357 의 조합원과 366 억원 자산으로 늘어났다²⁶⁾. 이와 같은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금융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립된 '경제협동체 도토리회'(2015)가 있다. '경제협동체 도토리회'는 마을의 경제자립기반을 만들고, 전통 금융 방식인 계(契)의 전통을 이어, 공동출자와 갯돈 납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구성원간의 상호부조를 꾀하고²⁷⁾ 있다. 근대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마을 경제 커먼즈를 형성해온 '풀무신협'과 달리, '경제협동체 도토리회'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마을 경제 커먼즈로 도입한 것은 마을화폐²⁸⁾이다. 이들은 2001년 레즈방식의 '홍성두레은행' 논의를 계속한 끝에 '홍성지역 화폐거래소 앞'(2017)을 출범시켰다. 마을의 돈이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해, 마을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 간의 '재능 나눔' 형식을 도입하는 한편, 24개 가맹점이 원화를 지역화폐로 바꿔주는 지역화폐 거래소를 겸하는 방식을 취했다.

마을 경제 커먼즈와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복지 커먼즈이다. 사실 의료복지 관련 논의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함께 할 의료진이 구성되지 않아 출범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홍성 공중보건의로 왔던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생협 논의가 구체화돼, 2015년 의료생협 '우리동네 의원'이 문을 열었다. 진료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건강돌봄교실, 찾아가는 건강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마을 의료 커먼즈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²⁹⁾. 전통의료 요법의 하나인 '우리마을 뜬방'(2008)도 마을 의료 커먼즈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의 제자가 풀무학교와 풀무학교 전공부 등과 함께 품앗이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뜬방은, 민간의료 요법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한때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뜬방운영을 재개했다³⁰⁾.

홍성의 마을 커먼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축 커먼즈이다. 먹거리를

26) 매년 1월말부터 2월말 경에 열리는 신협 총회에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모여 함께 토론하면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그 자체가 마을민주주의의 원점이라고 이병영은 설명하고 있다(2018.5.29. 인터뷰; 이병영,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그물코, 2018, 116-120쪽).

27) 총 협동기금은 2억1천만원, 대출 25건, 회원 89명으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지역화폐 공부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마실통신』 8월호, 2017.8.)

28) 현재 한국의 지역화폐는 서울 마포구의 '모아',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대전 '한밭레즈'에서 발급하는 '두루' 등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성의 경우, 지역화폐는 또 다른 경제 플랫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고 회원이 될 경우 회원간의 재능나눔도 가능한데, 목록으로는 재활용품, 농산물, 노동력, 함께 하기, 반찬 제공, 콜택시, 생일날 오카리나 연주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마실통신』 7월호, 2017.7).

29) 조합원은 총 448명, 출자금은 7천3백만원(2016년)으로, 1천명 조합원, 1천명 돌보는 의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와 복지가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의료복지센터'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홍성 우리마을의료생협] '우리동네의원'이 만드는 건강공동체」, 『한국농정신문』, 2017.7.2).

30)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부과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신청해 무죄(2018.5.31.)를 선고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청원과 항의 방문은 물론, 1심판결일엔 홍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명이 방청객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마을이 곧 교육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이다(<https://www.facebook.com/ddeumbang>).

스스로 해결하면서 집짓기를 스스로 해결 못할게 없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얼뚱 생태건축 협동조합'(2012)이다. 기본 골격은 '생태' 건축이다. 태양열 난방과 구들, 생태화장실 등을 골격으로한 건축 협동 커먼즈이다. 이처럼 환경을 염두에 둔 또 다른 마을 커먼즈로는 '원예조합 가꿈'(2011)과 '논배미'(2009),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2015) 등이 있다. '원예조합 가꿈'은 마을 식물상 조사, 다양한 식물 종 소개 및 공유 등을 통해 마을 자연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있고, '논배미'³¹⁾는 논에 사는 수서 생물과 논둑에 사는 식물 등을 조사해 논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재활용 가게와 헌책방에서 마을 기념품 구입하기 등과 같은 환경운동을 전개해 왔고, 최근엔 축산이 마을 자연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시키지 않게 할 해결책 등을 모색하고 있다³²⁾.

끝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마을의 문화·의료·경제·환경 커먼즈들이 제대로 된 커먼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커먼즈들도 있는데, 마을 거버넌스의 행정쪽 파트너인 '홍성통'(2013)³³⁾과 그 마을쪽 파트너 커먼즈라 할 수 있는 '홍성지역협력 네트워크'(2015)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홍성의 마을 생태계 형성과정에서, 사실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쪽 파트너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거버넌스 형성이란 점에선 보면 오히려 고무적이라 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지자체-행정쪽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 발전한 모델로는 전북 완주 모델이 있다. 하지만 완주모델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 맺는말

근대 푸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로컬 푸드 시스템의 붕괴와 국내 푸드 자금 시스템의 붕괴 및 소농의 몰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도농 간의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31) '논배미'란 '논과 밭에서 배우고 뛰어노는 미래를 위한 시간'이란 의미로, 마을 농민 단체와 갯골생태 농업연구소, 그물코 출판사 등이 함께 해 출범시켰으며,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농민과의 공동연구, 청소년 대상 논생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홍동면 논생물 조사팀 논배미, 「농업교육과 생태교육을 통합하는 논 생태교육 프로젝트 '논생물 친구들」,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환경교육지원사업 결과 보고, 2009. https://www.kbedu.or.kr/bbs/data/kbedu_or_kr/ins_bbs2/2009).

32)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은 축산으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축산사례들에 관한 조사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s://www.facebook.com/yshs.kfem>).

33) '홍성통'에서는, 농촌체험관광, 귀농귀촌,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와 같은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마을 거버넌스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홍성통' 마을변화 이끌어냈다-민관 거버넌스 구축 민관협력 이끌어내 사업성과 쌓여」, 『홍주일보』, 2014.7.25).

생태계를 이룬 홍성의 경우이다.

홍성은 1958년 풀무학교를 시작으로, 풀무소비자 협동조합과, 70년대부터 정농회를 통한 유기농업 시작 등, 일찍이 근대 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여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오리농법을 통한 유기농업이 홍성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였다. 홍성군 홍동면이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는 등, 2005년 홍동면 일대는 900농가 230만평 규모의 오리농법에 의한 유기농업이 실시되었고, 풀무생협을 비롯한 소비자 생협을 통해 도농간의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2006년 유기농 쌀과등을 계기로 홍성의 유기농 생산과 유통 및 소비 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유기농업이라 하더라도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농간의 분업 네트워크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꾸려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홍성은 도농 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 유기농 중심의 '농업' 생태계와는 별도로 '농촌(마을)' 안에서 우선적으로 생산과 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외부와의 연계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풀무생협과 달리 풀무학교 생협은 홍성 마을 내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꾸려갔으며, 할머니 장터조합, 홍성 자연재배 협동조합 등, 마을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농업생태계들이 2010년 이후 다양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농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1차 플랫폼 역할을 했던 '풀무학교'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마을학교'들로 분화되어 갔는데, 갓골어린이집, 햇밭배움터 교육네트워크 등 아이들을 위한 마을교육뿐 아니라, 갓골 목공실, 문당 환경농업 교육관 등 다양한 마을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밝맑 도서관과 생각실천 창작소는 새로운 농촌(마을)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2차 플랫폼으로서의 마을학교로 성장해 갔다.

농업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되어 갔다는 것은,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오누이 친환경 마을협동조합 등 청년농업문화 생태계 형성은 물론, 정신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 행복농장,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꿈이 자라는 뜰과 같은 마이너리티 협업농 등도 홍성 내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태계 만이 아닌 마을의 다양한 문화·의료·경제·환경 커먼즈들도 함께 형성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유기농 중심의 농업 생태계는 점차 농촌(마을) 생태계로 변모해 갈 수 있었다. 밝맑도서관과 마을활력소 등을 중심으로 그물코출판사, 마을학회 일소공도, 홍성지역 화폐거래소 및, 의료생협, 얼뚝 생태건축 협동조합 등 다양한 커먼즈들이 다양하게 가로지르면서 농촌(마을) 생태계는 풍성해져 갔다.

소비자생협을 중심으로 도시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홍성의 도농 네트워크형 농업 생태계는, 스스로가 다양한 커먼즈들로 이루어진 풍부한 농촌(마을) 생태계를 꾸림으로써, 대등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도농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도시 생태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시 농업 생태계 등을 기반으로 해서 도농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야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농 연구소(편), 『온 마을이 학교』, 그물코, 2011.
- 김소연, 「농생태학적 농촌개발을 위한 네스티드 마켓의 생성과 발전: 홍동사례 연구」, 『농촌사회』 25집 2호, 2015.
- 김정섭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 미래의 농민, 도전해야할 과제」, 『마을』 2호, 마을학회 일소공도, 그물코, 2018.7.
-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RHK, 2010.
- 이변영,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그물코, 2018.
- 이찬갑, 『풀무학교를 열며』, 그물코, 2010.
- 정기석, 『마을 전문가가 만난 24인의 마을주이자』, 펄복스, 2015.
- 정대이,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들녘, 2013.
- 정민철, 「농과 촌, 일과 공부, 마을과 학교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젊은 협업농장의 실험」, 『마을』 1호, 그물코, 2017.12.
- 장은성 편, 『우리 마을입니다』, 그물코, 2018.
- 폴 매티시(장수찬 역), 『마을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 가지』, 그물코, 2015.
- 허남혁,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 소비관계 변화: 홍성 풀무 사례연구」, 『농촌사회』 19집 1호, 2009.
- 허먼 데일리(박형준 역), 『성장을 넘어서 -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학』, 열린책들, 2016.
- 鈴木美央, 『マーケットでまちを変える』, 学芸出版社, 2018
- 藤吉雅春, 『福井モデル』, 文芸春秋, 2015
- 山田拓, 『外国人が熱狂するクールな田舎の作り方』, 新潮新書, 2018
- 「생협 주도 유기농 생산자 종속화 논란 파문」, 『한국농정신문』, 2014.09.21.
- 『젊은협업농장 소식지』, 2015년 6월호
- 「충남 홍성에선 ‘메기농법’ 진행 중」, 『한국농정신문』, 2016.10.30.
- 「홍성군과 노원구 도농상생 프로젝트홍성군 - 노원구 인적교류도 활성화 하기로」, 『홍성신문』, 2017.11.16.
- 「[홍성 우리마을의료생협] '우리동네의원' 이 만드는 건강공동체」, 『한국농정신문』, 2017.7.2.
- 「홍성 인구 10 만 1426 명」, 『홍성신문』, 2017.10.12
- 「홍성지역화폐폐거래소 '일' 엮니다!」, 『마실통신』 7월호, 2017.7.
- 「'홍성통' 마을변화 이끌어냈다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민관협력 이끌어내 사업성과 쌓여」, 『홍주일보』, 2014.7.25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식품 주요통계』, 2017. (<http://lib.mafra.go.kr>)
- 홍동면 논생물 조사팀 논배미, 「농업교육과 생태교육을 통합하는 논 생태교육 프로젝트 ‘논생물 친구들」,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환경교육지원사업 결과 보고, 2009. (https://www.kbedu.or.kr/bbs/data/kbedu_or_kr/ins_bbs2/2009)

* 本稿は、2019年度の熊本学園大学海外事情研究所の海外調査研究費助成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韓国の洪城における「むら」のコモンズと「農村(むら)」の生態系 「農業」生態系から「農村(むら)」生態系への変容

Commons of “Village” and Ecosystem of “Rural Village” in Hongseong of Korea - Changes from Agricultural Ecosystem to Rural Ecosystem

申 明 直
SHIN Myoungjik

[日本語要約]

近代フード・システムの問題点として、ローカル・フード・システムの崩壊および小農の没落などが挙げ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問題点を克服する努力、中でも韓国社会におけるフード・システムの持続可能性と安全性を回復するための努力は、1990年代以降、集中的に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洪城のように都市-農村間のネットワークを回復するために新しい農業生態系を打ち立てたケースがその一つである。

洪城郡洪東面の場合、1994年から実施されてきた合鴨農法による有機農業が2005年には900農家・230万坪の規模に、拡大し、自然生態優秀村に指定されるなど、ブルム生協をはじめとする消費者生協を通して都市-農村間の環境にやさしい農畜産物流通が本格化した。

しかし、2006年の有機米騒ぎをきっかけに、洪城の有機農生産・流通および消費システムは全面的に見直されることとなった。有機農業であっても、「農業」を中心とする都市-農業間の分業ネットワークだけでは持続可能な農業生態系を形作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であった。(そこで)洪城は、都市-農村ネットワークを中心とする有機「農業」生態系と別途に、「農村(むら)」の中で優先的に生産と流通・消費が行われる新しい生態系を構築し始めた。

洪城の都市-農村間ネットワーク型の農業生態系も同様に、消費者生協を中心とする都市消費者とのネットワークの形成においても、自らが多様なコモンズで構成された豊かな農村(むら)生態系を作り上げることで、対等かつ持続可能で安定的な都市-農村間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当然、都市の生態系も例外ではない。都市農業の生態系を基盤として都市-農村間の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ていかなければ、持続可能で安全なフード・システムを構築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ある。持続可能

なフード・システムの構築は、「農業」生態系の「農村(むら)」生態系への変換と、農生態学に基づいた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のみ可能になる。

消費者生協を中心とする都市消費者との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た洪城の都市-農村間ネットワーク型の農業生態系は、自らが多様なコモンズで構成された豊かな農村(むら)生態系を作り上げることで、対等かつ持続可能で安定的な都市-農村間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

キーワード：コモンズ、農業生態系、農村(むら)生態系、洪城、有機農業、プルム学校